



# 報 會 窓 同 總 士 空

發行人：朴 雄 鎮  
編輯人：姜 容 求  
印刷人：朴 炳 萬

(住所)：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 (非賣品)

## 회보 인덱스

- 2 · 士官學校 教育의 本質은 무엇인가?
- 3 · 同窓會에 關한 消息들
- 4 · 母軍 · 母校 短信
- 5 · 統一安保
- 6 · ISS 국제회의가 평가한 세계안보 환경
- 7 · 空士 1期의 이미지와 그 役割
- 8 · 그래도 즐거웠던 레이더 사이트 생활
- 9 · 미래를 여는 동영
- 10 · 軍 生活의 追憶
- 11 · 健康 (노인과 음식) · 애깃거리
- 12 · 장안의 상징 문화 타워

## 뜨俗이 왜 판치고 있는가?

### 正 論

縮圖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8백81만 8천9백64명으로 전체 인구 4천4백55만명의 20%에 이른다. 다섯명 중 한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수치이다.

전국의 교회는 5만개, 목사는 20여만명,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가 출석하는 「세계 10대 대형 교회」도 대부분이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改新敎의 特性인 多樣性을 바탕으로 敎會一致와 聯合을 이뤄 결집된 힘으로 민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한다면 민족화합에 크고 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 교회가 20세기의 강을 넘어 21세기 민족화합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정화 사업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선 예수님이 주장하고 실천한 사랑을 각 분야에서 보급하여야 한다.

사람의 성숙 단계는 첫째 관심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상호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하고, 셋째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넷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이상의 다섯가지만 실천한다면 뜨俗이 판치는 사회는 안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와 신도가 있는 데도 정신적인 무력유산 사람을 실천양고 믿기에 각종 범죄와 부조리가 만연돼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참된 사람을 7천만 민족의 가슴마다에 아로새겨질 때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진리와 구원은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닐는지. 그리고 무속은 깊은 곳에서 잠자게 될 것이다.

요즘의 세상은 어떻게 됐는지 뜨俗이 판을 친다고 한다. 전국 무속인의 수는 목사의 세배가 되는 6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3백만명이 넘는 국민이 자기의 주체적인 노력이 아닌 주술 점괘에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맡겼다면 실로 진기한 시대 풍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점술과 무속이 표면에 드러내 놓고 범람하는 사회는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려할 신문의 경우가 그랬고 구한말 망국시절에도 역시 온갖 祈禱 유사종교가 판쳤다. 이러한 무속 열풍은 한마디로 세상의 리더십을 믿지 못하고 일터에서 불안에 쫓기는 군중심리와 별리적 반응을 탓이라 할 수 있다.

아무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주술적 상흔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불건전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무속열기가 단지 개인의 앞날을 점치는 단계를 넘어 금년의 대통령 당선자는 누구다 또는 내각제 개헌이 올해 안에 실현된다는 등 마치 나라의 방향을 가르치는 國師인양 일부 무속가들이 매스컴 등에서 떠벌들여지는 상황에 이른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번 대선에서 어느 유명 인사는 열기까지 돌원해서 유명 점술가의 말을 그대로 따라다가 일을 그르쳤다는 웃지못할 일이 있었다. 그후에도 웬만한 실력자라는 사람들까지 조상 산소가 잘못돼 이장해야 한다는 등 실소를 자아내는 희극을 연출하는 장면을 속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근래 모 대기업에서는 조기



朴 雄 鎮(공사 4기)  
· 공사 총동창회 회장  
· 시 인

명예퇴직과 감원을 절쟁이의 의견에 따라 감했다니 실로 한심한 일이다.

동서양의 점술처럼 혹 개인의 처사를 대상 삼는다면 그런대로 애교로 봐줄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것이 점술의 하위문화적 소산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 공공의 앞날을 점괘에 맡긴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역술이나 무속인의 입장에서 국가 사회의 앞날에 관한 각자 나름의 결과가 떠올랐더라도 그것을 널리 공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칫 世患 謹民하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대중도 점괘에 너무 매여서 자신의 운대를 잃은 채 一喜一悲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바른 마음으로 제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일에 담당하게 산다면 福을 받는 한해가 될 것이다.

## 星 武 台

어느 하늘 아래 우리 나라처럼 암울한 나라가 있겠는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역대 국방장관 7명을 구속하고 있으니 말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 털어 먼지 안나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젊음을 바쳐 조국을 지켰고 그것도 과도기적 문명정국에서 그 어려운 소임을 완수한 사람을 수고했다고 훈장을 못줄 망정

비겁하게 과거를 들쳐 수치스러운 모욕을 주는 것은 사람의 연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유치한 처사이고 人間의 道理는

도 돌을 던지지 못했고 물러났다. 누가 누구를 단죄한단 말인가!

이제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세계의 빈축을 받는 일은

치는 깨끗하고 올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보복적 정치 윤리에서 벗어나 용서하고 포용

## 共 同 體 意 識 을 갖 자

더욱 아니다. 信義가 아무리 땅에 떨어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막가는 세태라 할지라도 사람을 그렇게 무참히 매도하는 법은 없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죽이려는 무리들에게 죄없는 자부터 쳐라 했을 때 어느 누구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고 공동체의를 발휘했으면 한다. 보복의 악순환이 나라를 망쳤던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죄는 역사적으로 비판하되 사람은 화합적 차원에서 용서하고 포용하는 정치적 풍토를 마련해 가자.

孔子는 政治를 正也라 했다. 정

하는 화합적 정치윤리로 전환할 때 정치의 안정이 정착되고 다가오는 미래 사회가 환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무한전쟁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나라 선진 통일조국이 이룩될 것으로 믿는다.



李鍾學(공사 3기)  
·서라벌군사연구소장

# 士官學校 教育의 本質은 무엇인가?

이 땅에 士官學校가 설립된지 반세기가 지났고, 이제와는 느닷없이 「사관학교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독자들은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리라. 지난해 여름 時事月刊誌에 다음과 같은 굵직한 활자의 글이 게재되었다.

## 士官學校 이전에 「명문대학」이여야 한다.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또 사관학교에서 20년간 교관생활을 했으며, 또한 사색한 결과가 「士官學校 이전에 명문대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사관학교 교육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나타낸 내용이며, 또한 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관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정립을 해야 할 문제이다.

### 2

한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영향력 행사는 결국 그들의 군사력에 의하여 좌우되었으며,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역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예컨대, 1907년 6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萬國平和會議가 열리게 되자 高宗皇帝는 사신들에게 신임장을 주어서 회의를 참석하여 한국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케 했으나 실패했다. 헤이그 密使事件을 트집잡아 伊藤博文은 皇帝를 만나, 「이와 같은 음험한 수단을 가지고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기보다는 차라리 일본에 대해 宣戰하는 편이 낫겠지요」하고 협박했고, 그 후 황제는 퇴위했다.

이런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 광복 후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士官學校를 설립했던 것이다. 사관학교의 설립은 적대국의 협박·침략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명화를 보장해 하는데 필요한 人材, 즉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戰場에서 초급장교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사관학교 교육의 근본문제이지만 각자의 전공분야에 따라 전연 相異하다는 것을 필자가 '60년대 사관학교 교수부에 재직하면서 체했었다. 現代戰에 있어서 最新武器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나 사관학교는 최신무기를 설계·제작하는 技術者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운용하는 管理者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理學士學位를 수여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교과과정을 보면 前者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戰爭·戰鬪에서의 勝敗의 要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며, 戰例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① 士氣要因(humanware)
- ② 戰略·藝術要因(software)
- ③ 武器·裝備要因(hardware)

미국이 월남전쟁에서 패배했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戰에 개입하여 철수한 원인을 최신식 무기와 장비에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요, 그것은 萬能藥이 아님을 증명했고, 그 敗因은 ①, ②에서 구해야 하리라. 中東戰爭(1967. 6. 5.)에서 이집트는 소련製 최신무기와 장비, 소련장교들에 의한 전략·전술을 배웠으나, 이스라엘 공군에 의한 일격의 기습으로 싸우려는 의지를 상실하고 말았기에 完敗당하고 말았다. 露日戰爭(1904~5) 이후의 日本軍은 오만에 빠져 白兵突擊主義·愛國心, 즉 ①에 도취되어 ②, ③을 소홀하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노봉한 事變(1939)에서 소련군 노봉에 대해 화염병으로 싸워 참패를 당했으며, 그 후 戰術학에 모르는 자들이 國家戰略을 주무르면서 美國·英國에 대해 自爆戰爭을 일으켜 敗亡했다.

高句麗·百濟·新羅의 삼국 가운데 國력은 신라가 열세였다. 그러나 그들은 忠孝思想으로 무장되어 戰場에서 죽는 것을 忠孝의 완성으로 확신했고, 싸움터에서 물러나지 않았기에 三國을 통일할 수 있었다. 朝鮮王朝는 儒教를 정치이념으로 택하여 孝를 중시하고 忠을 소홀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外侮가 있으면 國家보다 家門을 중시하여 山中으로 도망가는 명분을 주었기에 일진대일(1592~1598), 병자호란(1636)에서 무릎을 꿇었고, 1910년 日帝에 싸워 보지도 못하여 植民地가 되었는데, 忠孝의 두 글자의 위치와 해석에 따라 國運이 좌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朝鮮王朝의 말기는 ①, ②, ③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았다. 美 陸士生徒들에게 시주하고 있는 정신지주는 義務, 名譽, 祖國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리라. 戰爭에서의 勝敗는 士氣要因, 戰略·藝術要因 그리고 武器·裝備要因을 조화롭게 구비하는 여하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1962년 가을, 소련에서 소콜로프스키 元帥 편집으로 15명의 軍事專門家들에 의해 「軍事戰略」이 발간되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졌었다. 예나하먼, 스페친 將軍의 「戰論」(1926)이 출간된지 37년만에 軍事戰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례적으로 萊드研究所에 의해 1963년에 「蘇聯軍事戰略」으로 번역·출판되었다.

필자는 「소련군사전략」(1963)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의 집필자 가운데 軍事學博士(Doctor of military sciences)가 있었는데 이것은 소련에 軍事學이라는 학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陸軍參謀大學에서 1963년부터 軍事學碩士學位(Doctor of military sciences)를 수여했으며, 근래와서 博士課程은 설치했으나 학위수여

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

필자가 「國防研究」(국방대학원, 1979)誌에 「軍事理論體系에 관한 研究」를 발표했던바, 당시의 국방대학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다음 해인 1980년에 建軍史上 최초로 「國防學術세미나-軍事學理論과 教育體系定立」(1980년 10월 30일~31일)를 개최하게 되었다. 거기서 「軍事學의 理論體系」를 발표했으며, 핵심은 다음과 같다. 軍事學은 戰爭의 本質과 性格 및 武力戰의 준비와 수행에 관한 통일된 知識의 체계이며, 內容構成은 戰爭哲學, 戰爭學(軍制學·用兵學), 軍事史學, 軍事教育學, 軍事地理學(海洋學·氣象學) 및 軍事補助學問(外國語, 政治, 經濟, 社會, 法律...) 등이다.

### 3

사관학교 교육에 있어서 전환점을 가져오게 만든 것은 「士官學校 設置法」(1955. 10. 1.)과 「士官學校 設置法施行令」(1958. 9. 4.)일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士官學校 設置: 陸·海·空軍의 正規將校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 해군과 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 (敎科) ① 士官學校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정한다. ② 일반학교와는 理學士의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教授部는 一般課程, 生徒隊는 軍事學課程의 교육을 분장한다.

이 법을 草案한 사람은 軍事學을 어떻게 定義했고, 그 내용 구성을 생각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후 사관학교는 일반대학교와 마찬가지로의 文學士·理學士·工學士를 배출하는 곳이 되었고, 軍事學은 軍事訓練, 즉 各개 전투, 火器學, 공수훈련, 전술학(소대공격과 방어), 참모학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일가.

필자가 1956~7년 사관학교 생도대 군사학과 재직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한 사관학교 재학 중에 「孫子兵法」,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을 學問의인 軍事學을 전연 배운 바가 없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各種將校候補生들이 사관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군사학과에서도 시간을 낭당하게 되었으나 학문적 내용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했다. 마침 渡美留學生이 돌아온 과장이 가져온 클라우제비츠의 「戰爭의 原則」이 있기에 변형해서 가르쳤다.

1963년 9월 1일 군사학과는 생도대에서 교수부로 연속변경이 이루어졌다. 즉, 군사학이 정당하게 학문분야로 중요성을 평가받은 조치로 보며, 군사훈련은 종전

대로 생도대에서 담당하였다. '60년대 중반에 필자는 군사학과에 배속되었는데, 하루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物理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아 온 安在洙 소령(대령으로 교수부장을 역임했으나 작고함)이, 「자네 軍事學도 왜 문인가?」하고 농담을 걸어왔다. 필자는 웃고 말았지만, 그 후부터 軍事學의 理論體系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교수부에는 인문학과(37학점), 사회학과(36학점), 기초학과(54학점), 응용학과(41학점), 그리고 군사학과(16학점)의 5개 학과가 있었으며(말호 속의 학점은 16기 사관생도 교과과의 학과별 배정이다), 군사학과 전체의 학점이 16학점인데 반하여, 인문학과 영어과목만도 18학점, 응용학과 수학과목만도 19학점인지라, 부당함을 역설하고 군사학과에 더 많은 학점 배정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필자의 설명요령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교수부장이 사관학교 출신이던 일한대학의 英文學科를 나왔기 때문인지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필자가 국방대학교원에 재직하고 있을 때, 들리는 바에 의하면 軍事學科는 소멸되고, 社會學에 國防學科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공군 사관학교 요람>(1995~1996)에 의하면, 지금은 人文社會學部의 國防學科로 겨우 자리를 잡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에 있어서 軍事學이 후퇴하여 독립된 學處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개정된 「士官學校 設置法」(1994. 1. 5.)에 의하면, 「사관학교의 학과는 군사학과와 일반학교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교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일반학교정은 理學士, 文學士 또는 工學士의學位를 수여하는 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제 士官學校는 一般大學과 마찬가지로 理學士·文學士·工學士의學位를 수여하고 또한 사관학교의 핵심과목(44학점)이 「영어(23), 전산(13), 무도(8), 운전(전학점 외)」(「국방저널」 1996. 8.)이고 보면, 「사관학교 이전에 명문대학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고 불식할 수 있으며, 또 士官學校와 一般大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士官學校는 戰爭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하는 軍事學을 교과과정의 핵심 과목으로 定座케 하여, 졸업자에게 軍事學士學位(學位)를 수여하고, 또한 그들이 戰場에서 적과 부딪치면 승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곳이며 이것이 사관학교 교육의 본질이라 확신한다. 自衛力이 없는 國家는 파괴와 예측의 숙명을 지닌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 同窓會에 關한 消息들

## 總同窓任員(副會長, 理事)

1. 會長: 朴 雄 鎮(4期)

2. 副會長 및 理事

期	副會長	理 事			
1		趙長成	金正麟	金舜經	崔奎淳
2		吳世一	金泰哲	邊壽基	李文漢
3		孔思彥	高承萬	金鍾勳	鄭奎赫
4	金在玟	朴相朝	丁鳳鉉	梁宏錫	洪義台
5	朴鎔泰	尹春鉉	朴容櫻	崔泓濤	李在雨
6	全春雨	朴根泰	李潤雨	許恒茂	李秀烈
7	郭泳遠	吳學秀	金亨植	金仁壽	朴滿榮
8	白相熙	李相進	張正孝	吳世德	金元述
9	朴鍾權	權赫遠	慎都範	金明珠	崔一永
10	李秀吉	金漢龍	金在遠	金祥海	金萬圭
11	李泰植	安柄文	金鈺胃	申炳和	明英男
12	裴基俊	鄭敏男	全大禹	朴昌吉	崔大植
13	孫德圭	金英夫	李鍾大	李勝大	안병철
14	朴鍾洸	金世榮	韓龍吉	韓正九	閔信雄
15	朴邦弘	權基東	曹國鉉	金聖德	엄익준
16	吳昌模	金灰東	咸鍾河	강명식	박성국
17	宋大晟	魚秀淵	俞賢俊	張基善	鄭求鎬
18	尹管重	金柱淵	吳仁成		
19	片世榮	金福萬	丁成鎮	庾炳權	전재구
20	金永柱	李四龍	韓俊洙	최수길	차종권
21	朴京石	鄭東熙	金泰煜	황사용	
22	崔武烈	孫重烈	宋錫鳳		

3. 監 事: 李 宇 寧

4. 事務總長: 姜 容 求

## 會費納入한 同門들

1. 任員會費

- |                |                 |
|----------------|-----------------|
| △尹春鉉 (5기) 10만원 | △金明洙 (9기) 10만원  |
| △全雨錫 (6기) 20만원 | △裴基俊 (12기) 20만원 |
| △朴根泰 (6기) 10만원 | △全大禹 (12기) 10만원 |
| △許恒茂 (6기) 10만원 | △崔大植 (12기) 10만원 |
| △李秀烈 (6기) 10만원 | △朴昌吉 (12기) 10만원 |
| △李潤雨 (6기) 10만원 | △鄭敏男 (12기) 10만원 |
| △白相熙 (8기) 20만원 | △金鍾洸 (14기) 20만원 |
| △吳世德 (8기) 10만원 | △朴世榮 (14기) 10만원 |
| △朴鍾權 (9기) 20만원 | △韓龍吉 (14기) 10만원 |
| △慎都範 (9기) 10만원 | △韓正九 (14기) 10만원 |
| △崔永遠 (9기) 10만원 | △閔信雄 (14기) 10만원 |
| △權赫遠 (9기) 10만원 |                 |

2. 平生會費

- |                |                |
|----------------|----------------|
| △白慶煥 (1기) 10만원 | △趙慶來 (4기) 10만원 |
| △姜直然 (1기) 10만원 | △徐溶柱 (4기) 10만원 |
| △文國珍 (2기) 10만원 | △徐東烈 (4기) 10만원 |
| △吳世一 (2기) 10만원 | △成甫慶 (5기) 10만원 |
| △高承萬 (3기) 10만원 | △安錫錫 (5기) 10만원 |
| △金慶仁 (3기) 10만원 | △李炳稷 (5기) 10만원 |
| △金仁慶 (3기) 10만원 | △張箕鉉 (5기) 10만원 |
| △沈瑋慶 (3기) 10만원 | △鄭在植 (5기) 10만원 |
| △李明完 (3기) 10만원 | △李潤洙 (5기) 10만원 |
| △嚴龍龍 (3기) 10만원 | △全俊洙 (5기) 10만원 |
| △李仁行 (3기) 10만원 | △崔泓善 (5기) 10만원 |
| △鄭奎赫 (3기) 10만원 | △朴炳九 (5기) 10만원 |
| △曹博賢 (3기) 10만원 | △尹春鉉 (5기) 10만원 |
| △趙沼夏 (3기) 10만원 | △金鍾仁 (5기) 10만원 |
| △金慶慶 (3기) 10만원 | △朴容源 (5기) 10만원 |
| △張秉俊 (3기) 10만원 | △李源天 (5기) 10만원 |
| △崔恒基 (3기) 10만원 | △姜容求 (6기) 10만원 |
| △李景永 (3기) 10만원 | △朴根泰 (6기) 10만원 |
| △李景學 (3기) 10만원 | △李善國 (6기) 10만원 |
| △朴雄鎮 (4기) 10만원 | △全春雨 (6기) 10만원 |
| △梁承文 (4기) 10만원 | △李潤雨 (6기) 10만원 |
| △李時雨 (4기) 10만원 | △金元根 (6기) 10만원 |

- |                 |                 |
|-----------------|-----------------|
| △鄭用厚 (6기) 10만원  | △李鍾得 (12기) 10만원 |
| △金錫熙 (6기) 10만원  | △李洋 (12기) 10만원  |
| △姜尙遠 (7기) 10만원  | △李洪雨 (12기) 10만원 |
| △金俊洙 (7기) 10만원  | △배양일 (12기) 10만원 |
| △金道植 (8기) 10만원  | △李相京 (12기) 10만원 |
| △金東喆 (8기) 10만원  | △馮大錫 (12기) 10만원 |
| △鄭松采 (8기) 10만원  | △李鍾大 (13기) 10만원 |
| △李相進 (8기) 10만원  | △張德守 (13기) 10만원 |
| △文永福 (9기) 10만원  | △姜根宇 (13기) 10만원 |
| △慎都範 (9기) 10만원  | △柳大得 (14기) 10만원 |
| △金完洙 (10기) 10만원 | △김주식 (15기) 10만원 |
| △金潤珠 (10기) 10만원 | △최용환 (15기) 10만원 |
| △朴根輝 (10기) 10만원 | △金大旭 (15기) 10만원 |
| △李泰植 (11기) 10만원 | △고종무 (17기) 10만원 |
| △朴春潭 (12기) 10만원 | △金元圭 (30기) 10만원 |
| △裴基俊 (12기) 10만원 |                 |

## 總同窓會 이모저모

▲ 理事會 및 送年の 밤 開催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 空軍會館에서 理事會와 送年の 밤을 가졌다. 다사다난했던 丙子年이 저물어 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 理事님들 간의 상견례를 겸한 送年の 밤을 통해 동문간의 우정을 다졌다.

- 이날 심의 안건으로는,
- ① 역대 회장님들의 예우 문제는 타사관학교 동창회의 사례를 참작해서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가결함.
  - ② 총동창회 발칭은 공군사관학교가 羅武鏢이므로 그 명칭을 따서 별칭으로 하는 것이 공사출신의 선후배가 공감할 수 있기에 羅武鏢로 만장일치 가결.
  - ③ 공사교 기금 모금 문제는 현역중심으로 추진하되 공군과 관련 기업체 KAL, 아시아나, 삼성 등에 비중을 많이 들 것이며 전역 동문에서는 자기능력껏 기금하도록 결정함.
  - ④ 공사 우수 졸업생도 동창회장 시상문제는 타기관 수준에 맞게 삼장과 메달을 졸업행사 2부에서 시상하도록 공사와 협조토록 가결함.
  - ⑤ 송년 친교의 밤은 노래방 기기를 통해 기생별로 노래를 부르는 정도로 끝 맺었음.

▲ 1996년도 12기 勳靜

1996년도 동기생 운영은 총 14회에 걸쳐 연인원 202명이 참석하여 매회마다 평균 15명 내외가 참석하였으며 매년 동기생 중의 스폰서로 즐거움 대화의 장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 외에 총회가 3월 12일 12월 12일 동기생 부부동반 송년회가 공군회관에 있었으며, 멀리 충무, 대구, 대전 등에서도 참석하였다. 서울지역 외에 대전지역 지회에서도 별도로 현역을 포함하여 매월 동기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지 어언 33년 여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대부분 현역에서 물러나 각자 다른 직장과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도 성무대에서 맺은 인연은 평생의 형제애로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긴밀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동기생회, 총동창회 및 개개인의 소식전파를 위해서 매월 발간하는 동기회 소식지를 통하여 국내 및 국외의 동기생과 순직동기생 가족에게도 경조사를 포함한 동정을 실어 알리고 있다.

△ 丁海瑛(空士 1期)은 新年勇躍인 1月 15일에 젊음을 바쳐 조국의 하늘을 지켰던 전투조종사의 체형과 전역 후 사회생활의 경험 그리고 깊은 信仰生活를 바탕으로 한 글을 모아 한권의 아담한 책 『월월 날아가며 생각하며 기도하며』를 펴냈다.

TEL : (02) 545-0040 FAX : (02) 545-8493

△ 徐鎮泰(空士 8期)는 知天命의 나이에 勉學으로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政治學 博士學位를 획득했다. 指導教授의 碩士로 끝내고 돌아가지요! 아내의 박사 못되면 돌아오지 마시오!라는 서운한 말과도 불구하고 4年(1992. 3. 3. ~ 1996. 5. 14.)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영국의 博士學位를 받아 한국의 명예와 한국공군의 체면을 세웠고 우리 공사 후배들이 항공전략과 국방정책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자료를 마련했다.

TEL : (02) 233-9351

# 母軍 · 母校 短信

지난해 12월 2일 서산 기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제20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이번 창설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는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계획(KFP)에 따라 1995년 11월부터 국내에서 조립 생산되고 있는 최신에 KF-16 전투

호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단순히 비행단 창설 이상의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동 비행단 창설을 위한

일반 대학교와 陸士, 海士에서는 이미 학교 발전 기금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정예공군 양성을 위해 同門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해 6월 「재단법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이사장 이기현 공사교장)」을 설립

부의 독지가나 기업체 사회단체로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외부 독지가들의 경우는 보라매회원 독수리회원 우주회원 등으로 추대하고 기금한 사람의 이름을 책자로 발간 공사 박물관 및 역사자료실에 영구히 보존한다고 한다. 모금된 기금은 ① 세계

## △ 최정예 제20전투비행단 창설

기가 연차적으로 배치 운영된다.

서산기지는 서해안 지역의 유일한 공군기지로 수도권과 서해 5도는 물론 멀리 대륙세력까지 견제할 수 있는 21세기 전략형 공군력 확보 및 다가올 통일시대의 영공수

비행장 건설공사는 '91년 시작돼 6년간의 공사기간으로 고도의 보안속에 추진돼 왔으며 총면적 300여 만평 규모에 2개의 환주로와 적기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엄체호를 비롯한 작전시설과 최신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사교장은 「공사는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맞아 정예장교를 양성하고 세계 일류의 사관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상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과 첨단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조성 사업을 펼

쳐 학교 발전 기금조성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공군사관학교는 3차년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해 2010년까지 총 6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기금조성은 공사동문은 물론 비동문 교직원 학부모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외

화에 부응하는 교육 여건 지원, ② 공군 특성화 문예 연구 지원, ③ 생도 학술 문화 체육활동 지원, ④ 국내외 학술 교류 및 연수 지원, ⑤ 우수생도 모집을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 지원 등 생도교육의 내실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 空士 發展 基金 造成 推進

- 교육진흥 재단 설립 -

## 「禁女の 벽」 깬어도 「禁忌」는 如前

### ▣ 空士 여생도 내규 마련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사상 처음으로 여자생도 19명이 지난 2월 22일 남자 동기생 189명과 함께 공사에 입교 보라매로 첫발을 내디뎠다.

선발된 20명 중 1명은 가입교

무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남녀생도가 한방에 있을 때는 출입문을 열어둬야 하며, △취침 시간 이후에는 이성생도의 방에 출입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내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할 것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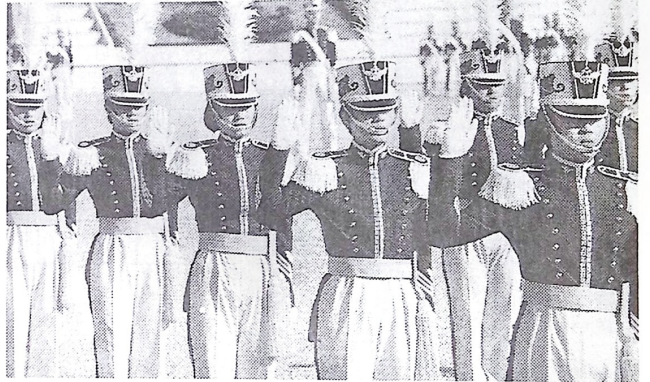
### 1학년때 생도간 이성교제 금지 성형수술, 액세서리 착용안됨.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이기지 못해 자퇴 19명만 禁女の 벽을 깨고 정식 입교했다.

앞으로 이들은 남자 생도들과 혼란 편성패 동일한 교육을 받으나 일과 후 내무생활은 별도 건물에서 하게 된다. 학교측이 이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성교제. 공사는 이 때문에 전에 없던 내

이다. 또 여생도는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을 할 수 없으며 간단한 기초화장은 관참지만 장신구와 메니큐어는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보라매가 아닌 메추리로 불리는 1학년 때는 아무리 건전한 이성교제도 할 수 없다. 선배나 훈육관의 눈을 피해 편지를 주고받다 발각되면 구보나 외출 금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입교선서 5주간의 고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空士에 입교한 여생도 19명이 22일 공사연무대에서 입교선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규제에 반대 밤 12시 30분 이후 불침번은 남자생도만의 몫이다. 또 구보 때 군침의 무게도 가볍게 했으며 고

된 운동은 소프트볼, 볼링, 에어로빅 등으로 대체된다. 특별히 3학년 접차리 여성학 강좌도 개설된다.

## 1997年度 定期總會 召集 公告

本會 會則 第13條에 의거 1997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자 하오니 空士同門들께서는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參席하시어 本 同窓會 發展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日 時 : 1997年 6月 18日(水) 18:00
2. 場 所 : 空軍會館
3. 主要議題 : ① 5次年度 會長 選出  
② 4次年度 會務報告  
③ 歷代 會長의 禮遇 問題
4. 其他事項 : ① 參席 會費는 없음.  
② 參席한 同門들간의 親交를 위한 간소한 자리를 마련  
③ 참석할 수 없는 理事님과 期生會長은 必히 첨부한 委任狀으로 應信바랍니다.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長



강 옹 구(공사 6기)

· 공사 총동창회 사무총장  
· 자유평화통일자문위원

<전호에 계속>

4. 우리의 통일정책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광복 제49주년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했다.

이것은 종래의 통일정책을 종합하고 우리의 좌표를 분명히 밝혔다. 집에서 민족통일의 도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대통령의 통일정책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1) 세계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선언하였고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다.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철학은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다. 때문에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2) 통일은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 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3)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민정부는 이미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서 「1민족 1국가의 통일방안을 완성」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통일된 조국은 남북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

(4)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시대는 지나갔다. 남북 사이의 체제경쟁도 이미 끝났다. 북한 당국은 구시대적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남북간의 화해를 저해하는 비방을 중지하고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킬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우리는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 북한은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 해정책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 에너지 개발에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것이다.

(6)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의 영광과 환희뿐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희생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기본적 철학은 인간중

統一安保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당위성

심의 자유민주주의이고, 통일의 원칙은 자주, 평화 그리고 민주이다.

통일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 단계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완성의 단계로 간다는 것이다.

5. 북한의 통일정책

(1) 통일전략기조

북한은 기본적으로 혁명전략의 시각에서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목표는 남한을 공산화로 하고 중국에는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노동당규약전문에 또 북한헌법 제2조와 9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들의 공포된 이론이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선남조선 혁명 후 조국통일의 노선을 견지해 왔다.

북한은 남한을 화합으로 재결합할 해어진 혈육 또는 동포로서보다는 반혁명 세력의 무리 내지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에서 헐벗고 굶주린 민으로 매도하고 있다. 북한은 혁명기이므로 남한은 반동 반혁명의 소굴로써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김일성은 생전에 이 통일방안을 외신기자들이 물으면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이 통수의 대표로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남북한은 그 밑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지역자치제를 하는 것이고,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중립노선을 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선거개념이 없고 연방헌법의 채택도 없으며 연방재판소도 없는 국민의 의사가 무시된 합작통일을 강조한 것으로 순수한 연방제 논리도 아니며 자유총선거 통일을 거부하는 주장일 뿐이다.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은 가관이다.

(3) 선결조건

북한은 한국이 그들과 고려민주연방 통일안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을

폐지할 것.

둘째,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가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합법화할 것.

셋째, 현정권은 방공정권이기 때문에 퇴진하고 공산주의와 손잡을 수 있는 연공정권을 수립할 것. 넷째, 현재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

다섯째,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관하여 미국은 전혀 관여하지 말 것.

이상의 선결조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자 하는 계략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이제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이룩하고자 하는 통일조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7천만 한민족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민주공화국이여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우리가 민족의 긍지를 갖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나서 인류가 추구하여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이는 바로 개인적 자유와 민족적 자주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체제와 이념이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은 분명히 남아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체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인 것이다.

또한, 통일은 자주, 평화, 민주, 원칙과 민족복지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엄연한 현실을 통찰하고 인정하는 신뢰부터 쌓음으로써 상호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남북연합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행복을 지키는 자물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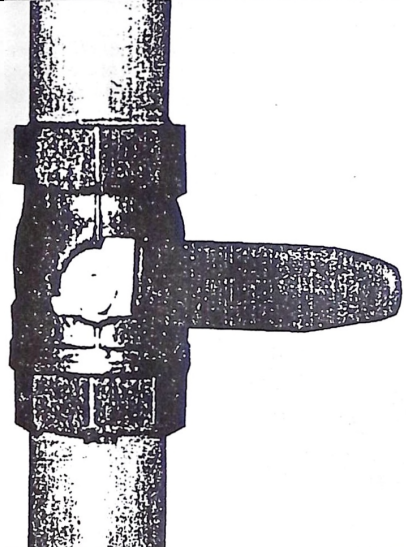
가스밸브를 꼭 잠그는 일 - 우리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 점화 후엔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합니다.
- 연소기 불구멍은 자주 청소하고, 호수와 이음새는 수시로 비눗물이나 점검액으로 점검합니다.
- 불을 켜기 전엔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킵니다.
- 가스가 샐 때는 밸브를 잠그고, 자연환기시킨 후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하여 검사받습니다.
- 이사 등으로 가스기구를 설치, 해체할 때는 반드시 전문시공자에게 의뢰합니다.

도시가스는 유일한 청정에너지입니다.



李 炳 稷 會長(空士五期)



도둑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스사고로부터 행복을 지키는 방법은 가스 사용 후 늘 밸브를 잠그는 것입니다.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중간밸브를 잠그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메인밸브까지 잠그도록 합니다. 이렇게 작은 수칙도 철저히 지켜간다면,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의 안전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國際會議

ISS 국제회의가 평가한 세계 안보 환경



朴鍾權(공사 9기) 한국 항공진흥협회 부회장

1. 제38차 ISS 국제회의

가. ISS의 새로운 位相과 國際會議

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y)는 순수 민간 전략 문제 연구 기관으로 영국의회의 부분적 재정 지원을 받아 1958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미국, 유럽, 아시아 및 중동관계 등 국제 사회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전략 문제의와 발표 국제회의의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과 이해를 증진코자 함에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90개국 1,700여명의 민간 회원과 각국 정부 및 기관 회원을 가지고 있는 ISS는 매년 세계 안보를 주제로 하여 안보 해결을 평가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해 가고 있다. 연례 국제회의(세미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ISS의 인지와 위상을 높여 주고 있다. 한국 회원으로는 기관 회원(10)을 포함, 8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나. 제38차 ISS 國際會議의 安保 主題

금년 ISS 연례 국제회의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4일간(9월 1일~9월 4일)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제는 「동맹과 세계 안보」(Alliances and International Security)였으며 40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고 국제 회원으로는 각계에서 15명이 참석했다. 연례회의처럼 2일간의 전체 주제 발표와 질의, 그 다음 2일간은 8개분과 본일 토의와 종합 결론으로 진행됐다. 암선된 안보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중에는 KEDO협상 미국 대표였던 칼 루치(Robert Galluchi) 전 미국무부 차관보와 울시(James Woolsey) 전 미 CIA국장이 참석하여 세계 안보와 미국의 역할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주제 발표를 했다. 한국 대표로서는 김경원 원장이 6분파에서 「아시아에서의 동맹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안보의 균형자로서 한·미 동맹관계가 강조됐으며 마지막, ISS 소장 Chipman 박사가 안보 주제들을 종합처리하여 탈 냉전 이후 세계 안보 환경을 요약 평가했다.

2. 세계 安保 環境 評價

가. 동맹과 국제 안보 요약

(1) 탈 냉전 시대의 새로운 인식의 하나는 동맹의 개념이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동맹국들은 동맹피로(Alliances Fat-

igue)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맹 그 자체도 발동되지 않거나 의무 불만족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 세계 유일의 실질적인 국제 군사동맹인 NATO가 발칸반도에서 기능을 발휘했고 세력팽창을 통해서 재탄생을 모색하고 있다.

(2) NATO는 21C에 유럽 안보의 중심체요, 안보의 핵을 이룰 것이고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커져 갈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위협의 인식과 미국의 유럽 주둔의 명분을 확실히 EU국가들이 갖게 되면 더욱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등 새로운 회원 가입의 필요성 등이 심층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21C의 안보 환경은 냉전 체제 이후의 낙관적 기대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지역 중심, 소수민족과 인종 문제, 종교 문제, 부존자원의 보존과 독점, 국가 이익 등으로 새로운 안보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세계는 과거 전통적인 동맹의 필요성이었던 영토 분쟁보다는 빈부의 심대한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4) 21C의 새로운 동맹 형태에 관하여는 위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에도 러시아 제국주의의 부활과 중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협화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보다 체계적이고 범국가적이며서 무력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위협을 상정해 봐야 할 것이다.

(5) 향후 동맹은 기존의 동맹관계보다 느슨하고 약화될 것이나 이는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있고 안정적일 것이다. 따라서 기타 국들이 동맹을 형성 유지하려면 강력한 제도 장치가 필요로 할 것이다.

(6) 최근 국제 정세는 양극 체제가 붕괴된 가운데 군사력은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아직 핵문제는 중요한 국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세계 전략은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막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21C에 있어서 동맹과 갈등

(1) 최근 국제 정세는 첫째, 양극 체제가 붕괴된 가운데 군사력은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둘째, 핵문제는 중요한 국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셋째, 미국의 세계 전략은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패권국의 등장을 방지하는 것이다.

(2) 이러한 전제하에 향후 미국의 동맹 형태는 우선 유럽의 안보를 위해 NATO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독일의 핵무장을 방지함으로써 주변국으로의 핵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아시아에서의 동맹 관계는 미국의 군사력을 전진 배치할 수 있고 이는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하여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중국에 대하여 미국의 국익 보호의지를 확고히 표명한다는 이점이 있는 반

면 러시아와 중국의 불만과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4) 향후 미국의 동맹 정책은 군사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사안별 동맹을 결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바, 이는自助와 공명분담이라는 원칙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유리하다.

(5) 한편 테러 집단에 의한 핵무기 공격의 위협이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는데 이는 사안별 임시 동맹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이며 구소련 국가의 핵물질 통제에 관한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

(6) 효과적 동맹이란 자국의 이익 보호에 기초한 강력한 신뢰성 있는 동맹이어야 하므로 동맹국의 공격을 받을 시 반드시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7) 서남아시아의 경우 미국이 긴장 완화 및 핵문제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미국의 필수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8)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동맹은 정세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바 선포의 관건은 미국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미국의 힘의 지지와 희생의 감수 의지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역할을 미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다. 동맹과 불순세력들

(1) 냉전 종식 이후 국제적으로 힘이 세져온 대신 각국의 반란 세력, 무장 집단과 중동, 북반구의 핵 위협 등 처치 곤란한 惡徒들(Rogueactors)이 판이 생겨났다.

(2) 우선 위협의 형태 면에서 보면 생물학 무기가 가장 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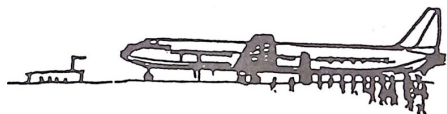
비밀 작전과 응징 조치를 취하고 다섯째, 적대 집단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방위 체제를 갖추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여섯째, 이란의 극소수의 과격 군사 종교 지도자를 제외한 집단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주제발표에 대하여 토론자로 지명된 요세프 조제(독일 「취트도이처짜이퉁」지 해외편집인) 씨와 여러 참내 회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나 지면관계상 내용을 생략한다.

3. '97 ISS 국제회의는 「싱가포르」에서

각 기관과 개인 자격으로 온 한국 대표들은 각각 회원들과 친교를 갖으며 안보 환경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국제회의에서 언제나 느끼지만 영여 구사의 한계를 통감했다. 세계화로 가는 우리의 노력은 지대하면서도 본 회의에서 한반도 남북문제가 핵문제를 관련해서 논의될 때마다 순간순간 안보환경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쉬웠다. 제6분과 「아시아에 있어 동맹관계」 본일에서 북경에서 Song, Yi min(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여)은 세뇌 교육을 철저히 받고 나왔음을 그녀의 준비문에서 알 수 있었고 본일 토의장에서 준비문을 낭독하듯 하여 중국의 군사대국화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는 강한 느낌을



곤란한데 그 이유는 기술, 장비의 구입 및 생산이 용이하고, 소탐에 의한 살상력이 막강하며, 확산과 전염이 쉬우면서 그 탐지가 곤란하므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 위협 세력으로는 이란이 가장 대응하기가 곤란한바 정교 일치의 독특한 교조주의에 입각하여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 탄압과 적대적 대외관계를 지속하면서 화생방 무기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있다.

(4)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다자간 논의와 대화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둘째, 상기한 생물학 무기의 위협을 노출되기 전에 지체없이 탐지,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와 제조업체가 협조해야 하고

셋째, 적대 집단이 행동을 취한 경우에는 정보 수집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넷째, 정보가 입수된 이후에는

주었다. 특히 한국의 대 북한 정책은 경제협력과 대화 공존으로 북한의 정치와 사회 안정을 도모케 해야하며 중국은 오랜 동반자로서 북한을 지원할 것이며 공존해 가는 것이 중국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ISS는 순수한 민간인 연구 기관이지만 세계 석학과 정치, 경제, 사회 각계 저명인사 및 각기관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는 남북 대화 및 통일 정책 그리고 동북아 안보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ISS 국제회의의 시에는 국내 회원들에게 외교 안보 연구회의 주도하에 안보 환경 설명회 및 정부의 통일 정책 방향을 이해케 하고 활동을 조직화해서 국제회의에 나서게 한다면 세계 안보와 협력을 위한 민간 외교활동은 물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전개에 한 가지의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丁海英(공사 1기)  
· 자유평화통일자문위원

# 空士 1期の 이미지와 그 役割

공사 1기생의 이미지는 대내외적으로 점차 광각의 눈으로 빠져들면서 쇠퇴해가는 모습으로 떠오르는 것이 특징처럼 되어 버린 것이었다.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나 저물어가는 석양임을 마다할 수야 없는 노릇이다.

잘 박힌 못처럼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야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제몫을 다 할 수 있을 터인데 과연 그러한지가 문제인 것이다.

이미 공사총동창회에서는 4기생이 회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보라매회에서는 아직 1기생 차례를 사양하다 싶이 머뭇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유야 어찌하든 이 모든 책임이 현 1기생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그 명예를 메고자 하는 인물이 나서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다.

이는 보라매회의 당위성과 그 존재이유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 영향력이나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보라매회야말로 현역공군의 국민적 배경으로서 장병들 사기를 뒷받침 해주는 보루(堡壘)이자 방파제이며 국민을 (이웃)이자 방파제 공군전력의 정신적 지주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에 낯다른 사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여생을 불태우려는 충정을 담아야 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 1기생의 현주소와 그 이미지는 과연 어떻게 묘사될 수 있으니까.

그 대답은 공사교 50년사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즉,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건국된 신생 대한민국의 국군을 최우선적으로 국군을 조직 강화하는 과정에서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설립하고 하늘을 지킬 사관후보생을 모집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에 14:1의 경쟁률을 뚫고 다음해인 49년 6월 10일 97명이 입선되어 청운의 꿈을 안고 입교하였으니 매우 명예롭고 가슴벅찬 일이었다.

실로 36년만에 국권을 회복하고 이를 하늘에서 지킬 간성을 양성하게 된 것이다.

초대교장이신 김정렬 중령은 교육의 대전제로서 실질강건(實質剛健)을 기저로 하여

- 「- 일류 공중지휘관이 되라
- 일류 기술자가 되라
- 일류 신사가 되라」였으니 이 또한 신선한 충격을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오늘날 일류대학이니 일류 선진국가이니 일류 세계중심국가이니 하고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공사교는 선각자적 목표설정을 그 당시에 예견하고 세워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교수진에 대한 숭은 이야기를 소개해 보면 국내 최고의 석학들을 감사료 없이 지프차로 모셔다가 만 1년간이나 무료 봉사케 하였으니 건국초기의 지성인들의 순수한 애국정신을 간파해서는 안될 일이다.

김정렬 전총리께서 은퇴 후 1기생 모임인 홍우회에 초청된 만찬석상에서 털어놓은 말씀이 또한 감동을 준다.

무보수 감사님들의 노고란 다 소나마 보답해 드리기 위해 몇 집 안되던 김포거리(현공항 입구)에 나가서 하나뿐인 경양식집에 모셔 놓고 고작 오드라이스 한그릇을 시켜드리고 교장자신은 학교로 돌아와 병식을 들었다는 에피소드다.

병식이라야 트레이에 살짝 얹어주는 밥 한공기 분량과 된장국 김치 정도였으니 숟가락을 놓을 때가 제일 허기짐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들 하나같이 아쉬워 했음을 적어둔다.

나라의 재정현황이 어려워 군량미조차 부족할지라 공사교의 외래감사료도 계정 못하는 실정에서 접대비나 판공비 등이 넉넉할리 만무했던 것이다.

한편, 교명개칭에 있어서는 미공군의 독립과 때를 맞추어 관계군을 보완함으로써 49년 10월 1일부로 한국공군의 독립과 함께 육군항공사관학교를 공군사관학교로 개칭하였으니 이것 또한 시운을 단 발빠른 현대공군으로서의 변신이었다.

그런하여 만 1년여간 정규과정을 이수하던 중 6·25가 발발하니 실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이때 비전투요원으로 분류된 공사 1기생들은 6월 27일 저녁에 작업복 차림으로(소지품은 일체 두고 올) 시흥까지 도보로 행군하다가 기차로 수원까지 후퇴하여 뜬눈으로 새우고 다음 날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난데없는 해산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노도와 같은 피난민들 와중에서 비상군조로 나누어 준 돈(2만원)이 1기생들 품위유지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서울학대로 대운란을 이룬).

다시 말하면 누가 명령하거나 지시한 것도 아닌데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순수한 애국심과 그간에 쌓은 군인정신이 발동되어 제각기 대전비행장까지 후퇴하였다가 다시 대구기지로 이동 집결하는 등 기민한 재편성을 이루어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후 전세(戰勢)에 따른 잦은 이동으로 대구에서 진해로 서울로 제주도 모슬포로 다시 진해로 사천으로 전전하다가 졸업과 입관은 51년 8월 5일에 진해에서 이루어졌다(83명).

본격적인 비행훈련은 졸업 후 1년 5개월 이상 계속되어 선두그룹인 C클래스 A팀 13명이 52년 12월 7일 강릉 전진기지로 이동하여 비로소 참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B팀 10명은 다음해 1월 하순에 H클래스 14명은 4월 초순에 각각 강릉으로 합류하여 휴전시까지 명실상부한 6·25참전공군전력의 주역으로서 눈부신 전과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주임부는 한국지상군 근접 공중지원작전과 후방차단작전이었으며 박비지 전쟁이 치열한 만큼이나 희생도 커서 1기생 전사자 4명과 비행 중 순직자 3명이 모두 후속팀에서 나온 사실이 지금까지 짐크스로 남아있다.

여하튼 오로지 자유수호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1기사관의 명예를 돌고 전하보다 귀한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그처럼 고비용의 전사자와 순직자를 피우어 서 있는 우리 동기들이 고인들의 무공과 명예를 추호라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아니 정성을 다하여 전적비를 세우고 위족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이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우리들의 몫이다.

휴전 후 세월은 흘러 96년 11월 현재 총사망자가 31명에 달하는 데 비해 국내 생존자는 37명 해외거주자는 15명선이니 매월 1회 모이는 수가 20명 미만으로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윤자중·이희근 양대장(장)에 이 건재해 계시고 5공 대국회에서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한 천영성 전의원이 아직 컨트리 클럽(안산시 소재) 사장으로 있음을 증명하여서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다.

또한 김정렬 롯데그룹 부회장 겸 롯데캐논(주) 사장이 건재하여 동기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 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리고 김상동(대구약국 경영), 김순경(성우회), 안창일(소아과 전문의), 이승주(주지), 전종규(쌍용개발), 조장성(1기생 회장) 등의 노력집을 바라볼 수 있는 즐거움도 남아 있다.

또한 상군은 아니지만 다양한 봉사직을 가지고 반(半) 은퇴생활에 들어가 있는 24명의 동기들도 나름대로의 원로로서 유유자적하면서 수행이나 취미생활로 소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모습임을 송길일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서 1기생의 현주소와 역할에서 나온 이미지는 첫째 일류신사임을 자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일류공중지휘관(群)을 비롯한 일류기술자(群)를 거치는 동안 일류신사임을 틀림없이 갖추고 자부한다.

더구나 문민정부시대를 맞게 되어 우리가 공사에서 배우고 공군에서 적용해 온 가치관과 세계관이 기본토양으로 작용하여 민주적이며 생활양식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소위 개발독재시대에 구색 맞추기식 참여와 수혜적인 끼어들기에 머물러 왔음에도 불

경할 줄 모르고 기술공군의 순수성을 지켜오면서 정예공군 본연의 비상대기 태세 유지와 방공임무 수행에 눈부신 공헌을 해낸 사실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결양지덕을 생각하여 일류신사까지는 못됨을 시인하고 그냥 신사로 불려주어도 족하다는 주장을 할 동기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됐다.

그러나 한때 뜻을 같이했던 공동 목표만을 일류신사가 되는 일임을 명예롭게 여기고 그 지표를 계속 추구해 보겠다는 의지가 남다른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가령 불법이나 비리도 치부하여 해외도피식 호화생활이나 국내 은둔식 호사생활을 누린다고 해서 신사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해외로 진출한 동기들의 경우에도 민주적 시민정신에 쉽게 적응하여 별 어려움 없이 일류공민역할을 잘 해내고 있음을 보게된다.

언필침 소시민적 생활에 만족해 하는 것이, 곧 1등 국민이요 일류신사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셋째, 불법과 비리와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기술공군 운영을 통해서 체득한 생활윤리로 때때로 특정이 치부한 사례는 있을 수 없으며 거의 연금에 의존하는 1기생들이라 선뜻 사회단체를 책임질 만한 뒷심이 약한 데서 오는 의욕감퇴를 흡이라던 흡으로 꼽아야 할 것 같다.

이에 비하면 2기생을 비롯한 후배들 중에 재덕을 겸비한 인물들이 부성하여 공사총동창회장을 역임해 나가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고 참신한 비전과 덕망을 겸비한다면 얼마든지 덕은 따라오게 마련이므로 보라매회장의 역할은 가까운 장래에 1기생 중에서 그 소임을 다해 줄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까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영역에서 얼마 만큼 창의적이고도 생산적인 일을 성취해 가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일류신사는 참 자유인을 말한다. 자유인은 민주사회의 꽃이다. 그러므로 1기생의 이미지는 미래 지향적 희망에 차있는 신사라고 할 것이다.

일류공중지휘관의 역할도 일류 기술자의 역할도 명예롭게 끝내고 이제 일류신사의 역할을 맡아 있게 해내는 일이 주 역할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예공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하고 예비역 회원들의 결속을 통해서 국가안보의 일익을 담당하며 일류 세계중심국가라는 대연의 틀을 일신진 조국을 기약하는 대열에서 흔들림 없이 후배들을 결집케 하는 역할이 1기생의 기능이라 생각한다.



金 國 璋 (공사 7기) · 새마을금고 연합회 지도부장

# 그래도 즐거웠던 레이더 사이트 생활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1976년의 백령도 Site 대대장 생활은 나의 군대생활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다. 만행사건 돌발 이후 백령도 근무장병들은 전쟁 일보 전의 긴장감 속에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 지휘관으로서의 장병들의 지휘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장병들의 정신지도와 사기진작에 전력을 쏟았으며 전장병이 안정된 상태에서 일직단결하여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터에 전혀 뜻밖의 사고가 터지고 만 것이다.

그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의 어느 일요일밤 자정쯤이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대 잠결에 받아보니 "지금 해병 대대장이 현병대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부대 일직참모의 다급한 보고였다. 옷을 주워 입고 관사 후문을 통해서 300여m를 달려 당직대에 도착해 보니 권총을 찬 해병 대대장과 참모 두 사람이 책상을 뒤집어 엮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슬까지 취한 이들을 달래며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정문 현병으로부터 '지금 해병대가 새까맣게 포복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아찔한 생각이 든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우선 기동타격대 출동대기를 명하면서 해병 대대장에게 "최전방지역에서 아군끼리 전투할 한 작정이요? 빨리 병력을 천수시 키시오"라며 강력하게 함의를 했다. 그러나 해병 대대장은 "공군 대대장이 우리 병사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할 하시오. 그렇지 않는 한 우리 병사들은 전대로 천수하지 않을 것이요"라고 말을 되발는 것이었다. 일단이 위급한 사태를 수습하고 보아야겠기에 해병 대대장에게 그렇게 해보자는 언질을 주고 그와 함께 정문으로 나왔다. 정문에 도착하니 '엎드려봐'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해병을 중 지휘자가 뛰어 나오며 '공군부대장 인회하에 정문현병 2명을 사살하겠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받아 해병 대대장이 "공군 대대장이 여러 대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겠다고 하니 일단 들어보자"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들의 총부리 앞으로 나아가 결연한 어조로 말을 열었다.

'나는 관사에서 자다가 전화를 받고 공창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파악도 못한 상태이다. 내가 오늘밤에 조사를 해보고 공군측에 잘못이 있다면 내일 오전 9시까지 사고 당사자를 데리고 귀부대로 가서 전장병 앞에서 사과를 할테니 오늘은 일단 돌아가 달라'는 말로 설득을 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당신, 내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정현한 그쪽 대원 33명은 몇 발의 공포까지 쏘아대며 돌아갔다.

허탈한 기분을 안고 담직대로 돌아오며 사고의 뒤처리를 생각해 보니 결론은 아주 간단했다. 최전방지역에서 무장한 소대 병력을 이끌고 아군부대를 쳐들어왔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병사들 간의 사소한 트러블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나는 사고를 낸 사병 2명을 영창에 넣고 부하들을 교육 못한 나 자신을 벌한다며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냄으로써 모든 문제는 불문에 부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영창에서 대대장실로 출근한 나는 해병여단 참모장에게 전화로 어젯밤의 사태를 통보함으로써 승패는 판가름나고 말았다. 9시가 되니 어젯밤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참모장이 관련 대대장과 장교들을 우리 부대로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한 후 돌아간 것이다. 그 후부터 수주일에 걸쳐 해병대 참모단, 하사관단, 병사 대표단이 음식물까지 준비해 가지고 우리 부대로 찾아와 운동경기 등 친선잔치를 펼침으로써 양군간의 전우애는 돈독해지고 사교는 근절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 해병대에 의하여 불쌍당한 정문으로 나가면서 만약 나도 흥분하여 기동타격대를 출동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위기 속에 기회가 내재되어 있다더니 그 어렵던 백령도 생활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중요한 Moment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 후 1978년 9월, 나는 국방부 주최 '전군 정신전력 강화 성공사례 발표대회'에 공군대표로 출전하여 '백령도 부대 지휘 사례'를 소재로 발표, 1등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 공군 정신교육원에 의해 감사로 초빙되어 제대를 할 때까지 6년여 동안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 중의 하나다.

군대에서는 제법 잘 나갔던 나였지만 1984년, 막상 제대를 하고 사회로

나오니 앞길이 막막했다. 방공관제 특기란 사회에 효용성이 전무하여 군대 밖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과, 그런데도 나는 공군 정신교육원의 강사경력과 그때 정신교육원에 관여했던 분들의 추천으로 '새마을금고 중앙교육원' 교수로 특채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5공정권을 지나는 동안 억울하게도 '군발이' 소리를 들어가며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주어진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명예로운 정년퇴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더욱이 새마을금고 중앙교육원 재직시의 인연으로 퇴직한 지금도 전문대학에 강사로 출강할 수 있으니 오직 나의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칠 뿐이다.

26년간의 공군장교 생활의 대부분을 Site에서 보낸 관계로 22번이나 이사를 하는 등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군대생활이긴 했지만 4개 Site의 대대장과 초대 31전대장 등 8년간의 지휘관 생활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생각하면 그때 아껴주었던 삼사님들과 그 어릴 때 함께 했던 옛 전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 Panasonic

### ☎ 통신기기류

#### 1. 휴대폰 EB-H65K(Personal Cellular Phone)

손에 꼭 들어가는 슬림사이즈의 세련된 디자인 137g의 최저중량  
휴대가 편리하고 사용이 간편한 '97년형 최첨단 휴대폰  
통화 중 끊기는 현상을 최소화했으며,  
깨끗하고 잡음이 없음.  
초절전 회로설계로 장시간 사용가능

#### 2. 가정용 무선전화기 KX-T9520KR

믿을 수 있는 마쓰시타의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선진형 900MHz대 무선전화기 40Ch 오토스캔  
디자인으로 가볍고 광다이얼기능을 갖춘 첨단형 무선전화기

### ☎ 사무기기류

#### 1. 전자칠판(Panaboard)

간편한 회의문화 창조  
쓰여진 내용, 붙여진 내용 모두 정확하게 복사가능  
PC 및 프린터와의 연결로 편집·저장·검색기능  
복사 감열지 자동 절단 기능, 9매 연속복사  
초절전 회로설계로 장시간 사용가능

#### 2. 문서세단기(Shredder)

- ◎ 임원실용  
일반사무실 및 임원용으로 꼭 필요한 기능을 갖춘 고급형 문서세단기
- ◎ 전산실용  
전산용지의 A4용지 자동등지 및 연속, 세단기능  
세단된 종이 재활용 가능

한서산업개발주식회사 · 한송정보통신주식회사

사장 정 병 주 (공사 5기)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4-6 대봉 B/D

Tel : (02) 554-5025 Fax : (02) 554-5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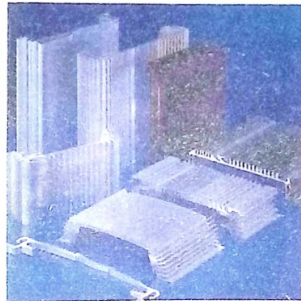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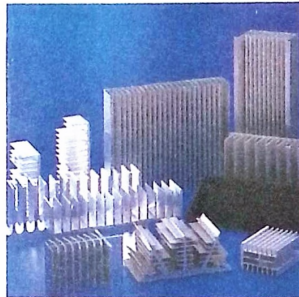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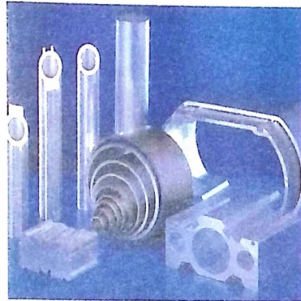


발

축

전

알루미늄 문화창조



미래를 여는 동영

오로지 이 하나를 위해 동영은 창립 이래 꾸준히 정진해왔습니다.

창업 이래 20여년간 한결같은 장인정신으로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로  
알루미늄 창호재를 비롯하여 알루미늄 산업용재 및  
전자부품소재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영혁신 및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관리에 주력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산업제품 및 첨단소재 산업분야에 주역이 되어  
국내외 알루미늄소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東榮알루미늄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鍾 仁 (공사 5기)

本社·平澤工場 : 京畿道 平澤市 振威面 佳谷里 357番地  
TEL : (0333) 667-8141  
FAX : (0333) 667-4079

서울營業所 : 서울 瑞草區 瑞草洞 1306-8(대동빌딩 11층)  
代表電話 : (02) 562-4996  
F A X : (02) 556-1100



權有根(공사 7기)  
· 세계 코퍼레이션 고문

# 軍 生活의 追憶

나도 O-1기를 10회나 탑승하여 폭격기와 전투기를 지원 유도하였다.

또한 백마부대 제30연대가 주관한 야간 전투대 미 공군 HEL기에 탑승하여 조명탄을 투하하면서 폭격기를 유도하여 월남 중남부 Cam Ran Bay 뒷산에 있던 베트남 집결지를 완전 소탕하였다.

그리고 백마부대 제29연대 관할 지역인 산악지대 베트남 소탕과 함께 B-52기를 유도하여 맹호, 백마부대 작전지역에 대한 음단폭격을 하였고 베트남 집결지에 대한 고압제 살포 후 육안점찰 등 100회 이상 중남부 FAC 임무에 출격하고 1년 후 1968년 8월에 자부심스러운 우리 공군에 복귀하였다.

우리 국군과 미군의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월남전은 월맹과 베트남의 무력으로 1975년 4월 30일에 공산화되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로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원정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월남때 말이 주는 교훈이리란

첫째, 국민들에 의한 총력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과 둘째, 동족간의 살상전쟁은 결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 셋째, 공산주의자와는 어떠한 타협도 평화제도의도 받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1982년 1월 1일자로 준장으로 진급되어 작사 작전부장으로 보직된지 3개월만에 공본 기획관리참모부 차장으로 보임된 5월초 제주도 VIP 임무수행을 위한 예행연습시 공군 C-123 수송기 추락사고로 목전사 병력 다수가 손직함으로써 참모총장이 결정되고 공군 내부시 사이돌때 또 작전사령부 작전부장으로 재보임되어 근무하던 중 그해 10월 난데없이 중공 MIG-19기 한 대가 귀순 성남군군기지에 착륙했다.

그날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스카루노」가 방한 중에 있기 때문에 공중에는 24시간 공중감시 초계비행을 하고 있었다. 이때 국적 불명기 한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함에 따라 작사 전투상황실에서 즉시 우군 초계기 F-4D에 전술조치 명령을 내려 요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기가 불순하여 육안 포착이 불가능한 틈을 타서

정체불명기는 구름을 뚫고 성남군기지에 불시착하고 말았다.

그때 우리 공군은 물론 국방부 관계자들도 잘 조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난데없이 국군 보안사 요원 10명이 돌이닥쳐 전술 조지에 잘못이 있다면서 문책하기 시작했다.

이유인즉 요격조종사가 육안으로 MIG기가 확률 전 시뮬레이션에 못했느냐라는 것이다. 이 문제로 10일간 주야로 조사를 받다 보니 부대 내의 분위기는 썰렁하고 조종사들의 사기는 엉망이었다.

레이더로 포착은 했어도 사람의 관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안개속이나 구름속 같은 시야가 없는 지역에서는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시력이 아무리 좋은 조종사도 눈은 잠깐과 다름없는 데 어떻게 MIG기를 육안으로 포착 착륙을 유도하라는 것인지 말도 안되는 추궁을 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작전상황실 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본인이 보직 책임이라는 불명예로 이 문제를

## 월남의 패망이 준 교훈은 국면등에 의한 충격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공산주의자와는 어떠한 타협도 평화제의도 받아 주어서는 안된다.

매들지게 되었다. 덕분에 국방대학원에 입교하여 국방대학원 유사 이래 없었던 학생장을 공군인 내가 맞게 됐다.

轉禍爲福이라 할까 이곳에서 각군 고급 장교들과 친교를 맺게 되어 군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다. 1년간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공군 30방공제단장에 보임되었다.

공군의 숙원사업인 방공관제 자동차 사업 일명 222사업이 미국 유스사와 계약 후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작전개시(DOC)를 못 하고 있었다. 당시 공군 방공관계 관련 전문가와 유스사 기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나의 결심으로 1985년 7월 5일 국방부장관 임석하에 작전개시한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군 최초 MCRC가 창설되어 방공 자동화 작전수행의 효시가 되었다.

책임자가 때가 됐는 데도 몸을 도사리고 伏地不動하면 그 조직

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퇴하고 가는 법이다. 10년을 가까이 끌어오던 방공작전 자동화 사업을 보면서도 더 지연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중대한 사업을 미룰 수만은 없는 애국적 충성에서 회생을 각오하고 추진했던 것이다.

MCRC가 작전개시 된 후 처음에는 장비가동 상태와 근무자의 전술조치 미숙으로 약간에 차질을 빚었지만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력의 보충으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무난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운영을 하게 되었다.

또 이게 웬일인가. 1985년 8월 20일 중공의 수송기 한 대가 서해 영공을 통과하여 전라북도 어리시 근처 논바닥에 불시착했다. 이때 이 지역을 MCRC RADAR SCOPE로 감시하던 근무 장교는 스크린상에 나타난 항적을 우군 기로 착각하여 전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실수는 용납되지 않으며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실수이다.

그러나 당시의 근무자는 전관 제장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관용이 베풀어져 특별한 문제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다름해 중령으로 진급해서 방공관제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분사했다.

우리 공군은 항공기의 현대화로 전력을 강화했지만 일차적인 전술이나 할 수 있는 방공망 자동화로 영공감시에 손색없고 신뢰받는 공군으로서 국방의 성업을 다하게 되었다.

27년간 젊음을 바쳐 조국하늘을 지켜왔고 그간 11년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 볼 때 후회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그간에 얻은 교훈이란, 첫째는 다양한 방면에 지식을 갖도록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도록 평소 건전한 생활을 하여야 하고, 셋째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하루 세기로 만족하는 청정결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조직의 장은 언제나 선수범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군기가 확립되고 군의 발전과 미래가 보장된다고 확신한다.

## <星武 칼럼>

지난날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가 있었다. 이때 콩보리밥을 먹으면 왜 그렇게 소화가 잘돼 배가 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없이 일어났다. 그것이 방귀이다.

국어사전에 방귀는 「똥속에서 이상발효로 생겨 환풍으로 나오는 구린내 나는 가스」라고 설명되어 있다.

나뭇잎이 곱게 물들고 한잎 두잎 방위에 떨어져 낙엽이 쌓이는 계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단풍구경을 나간다. 산골짜마다 인파로 뒤덮고 길마다 자동차 뚝수를 이룬다.

정치권은 예산심의 문제와 사정문제 대권병에 걸려 입씨름. 아무런 소득 없는 공방전만 계속하고 있어 짜증나고 열받는다.

이렇게 꼬이고 여름의 양철 지붕처럼 달아오르는 마음들을 시원히 풀어주는 웃음의 노래가 관광버스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이른바 방귀타령이다.

할아버지 방귀는 팔랑방귀, 할머니 방귀는 주책방귀, 큰아버지 방귀는 버럭방귀, 큰어머니 방귀는

욕실방귀, 시아버지 방귀는 호령방귀, 시어머니 방귀는 잔소리방귀, 작은아버지 방귀는 인정방귀, 작

## 방 귀 타 령

은어머니 방귀는 격정방귀, 고모 방귀는 끈끈이방귀, 이모 방귀는 할매방귀, 외숙부 방귀는 트름방귀, 외숙모 방귀는 허풍방귀, 큰아들 방귀는 책임방귀, 작은아들 방귀는 바람방귀. 방귀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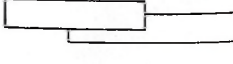
그럼 계속해본다. 시누이 방귀는 여우방귀, 시동생 방귀는 사람방귀, 손자

방귀는 기쁨방귀, 손녀 방귀는 애교방귀, 장인 방귀는 열려방귀, 장모 방귀는 꿀떡방귀, 처삼촌 방귀는

숙빈방귀, 처남 방귀는 위로방귀, 처제 방귀는 선물방귀, 처형 방귀는 시샘방귀, 친구 방귀는 의리방귀, 동창생 방귀는 약속방귀, 사장 방귀는 서비스방귀, 방귀는 귀는 바람방귀, 교수 방귀는 귀, 학생 방귀는 귀, 운전수 방귀는 귀, 목사 방귀는 귀, 스티브 방귀는

귀, 도시사람 방귀는 야망방귀, 농민 방귀는 김매기방귀, 기업인 방귀는 수출방귀, 중업원 방귀는 불만

방귀, 이방귀 저방귀 좋다 해도 마누라 방귀는 사탕방귀. 그러면 국회의원 방귀는 무슨 방귀일까. 아마도 싸움방귀 아니면 고집방귀 또 뻔뻔방귀가 제격일 것이다. (編輯室)



# 해외토픽

## 체중 9kg 76살난 아기 있다

### 성장 멈춘 채 우유먹고 하루 18시간 “쿨쿨”

76살이나 된 할아버지 아기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동문들이 믿거나 말거나 최근 미 주간지는 이러한 희한한 아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미국 앨라배마주에는 나이를 먹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아기가 있다. 이름은 세드릭 돌리모어. 1921년 2월 4일생인 세드릭은 태어나서 몇 달 후 체중이 20파운드(약 9kg)가 된 이후 76년간 한 톨도 보태지지도 않았고 한 치도 자라지 않은 그대로이다. 물론 보통의 아기답게 서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한다.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늙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불가사의에 대해 의사들은 아무리 첨단 의학기술을 동원해 알

### 온갖 검사 거쳤지만 의학적 결론은 “정상”

아내려고 해도 알 수 없다며 머리를 흔든다. 의학적으로는 정상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은 온갖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보았다. 결론은 세드릭이 아직 어린 아기와 같다는 사실만 밝혀냈을 뿐이다.

뇌하수체를 비롯해 기타 성장관련 기관을 조사했고 세포조직을 떼어내 검사했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며 이것을 총체적으로 산화를 거부하는 독특한 작용을 한다는 것만 가진 밝혀냈다.

세드릭의 어머니인 안나 돌리모어는 세드릭이 태어날 때 22살 처녀였는데 이제는 98세의 파파 할머니가 되었다. 아직도 아들에게 우유와 이유식을 먹이고 있다.

미망인이 된 안나 할머니는 세드릭이 태어날 때



76년전의 사진



98세의 어머니 76살의 아기아들 사진

1921년에 찍은 세드릭과 어머니 안나 모자의 사진 (왼쪽)과 1997년에 찍은 98세가 된 안나 할머니와 76세된 아들 세드릭의 사진 (오른쪽)

는 건강하고 정상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몇 개월 후 세드릭이 체중 증가가 멈추자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애는 잘 먹고 잘 자지만 성장하지 않았어요”, “의사선생님한테 데려갔지만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 후 수년간 안나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특별식을 먹였으나 세드릭의 체중은 그대로였다. 신선한 공기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 자주 밖에 데리고 나갔고 팔다리를 잡아달래 주기도 했지만 헛수고였다. 5살이 되자 부모는 그의 성장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는 걸지도 기지도

팔팔이를 손에 쥐지도 못했다. 오로지 우유와 이유식만 먹고 하루에 18시간을 잔다. 돌리모어 부부는 세드릭 이후 더이상 아이를 갖지 않았다. 문제는 내가 죽고 난 다음 그 애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질병이나 치명적인 사

고 없으면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아이를 입양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 健康

「노인의 식생활하면 시시하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성싶어 생소한 지각신어 老耄(노인)로 대신했다」

노인에게 단 하나 남아 있는 마지막 삶의 즐거움인 먹는 재미를 거론하는 것이다.

늙으면 위장이 약해지고 식욕도 감퇴되어 양은 줄고 입맛만 까다롭게 변한다. 1천5백년 전에 편찬된 千字文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가 글자를 배우는 입문서였고 동시에 자연과 인생을 가르치는 교본이기도 했다.

후미에 지금의 영양학에 뒤지 않는 식생활의 지도원리 6절

24자가 있다. 그중에 老少異糧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五十始衰糧宜自異 不可與少壯者同也」라는 글은 노인의 식사는 젊은이와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이 2

그리고 80이면 합삼 진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90이 넘으면 거처하는 침소에 음식이 떠나지 않도록 대령하여 언제나 마시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고대부터 이러한 특이점에 유

에는 최선을 다하나 노인에게는 못본척 한다.

영양 전문가들도 성인병을 내세워 급기사함만을 강조할 뿐 노인의 보신을 위한 권장사항은 언급하지 않는다. 게다가 음식의 세대차이까지 겹쳐 식생활의 불편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근간에 옆에서 견재했던 벗들 중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고 있다. 건강하게 보이던 친구가 몇 일 후에는 갔다는 것이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나 노인의 노량문제도 모든 노인문제처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가 헤쳐 나가야 할 자력갱생의 지혜를 찾아야 잠수한다.

## 노인 과 음식

천5백년 전에 나온 周나라 禮記에 있는 「五十異糧 六十宿肉 七十截膳 八十常診 九十飲食不離臠 臠飲從於可也」가 出典이라는 사실이다.

50부터 식사가 달라지고 60에는 고기는 육회나 육포가 좋고 70에는 반찬을 여러가지 마련해야 한다.

념하여 노량문제를 정비했고 같은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식사층도 그 같은 가르침을 따랐다.

지금 노인 중에는 어렸을 때 간식거리에 끌려 노인이 계산 방을 자주 기웃거리던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말았다.

가정 주부들은 찢먹이의 이유식이나 성장하는 자녀의 영양식

발

축

전

겸허한 마음으로 건축문화 창조



# 장안의 상징 문화타워

(주) 기산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진출

정치·경제·문화·금융·교통 일번지

시행사 (주)거삼 TEL 730-0566

▲ 株式會社 巨 三 FAX 734-8197

시공사 (주)기산 TEL 650-6500/6600

**Kisan** FAX 652-2184